



담당 부서: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교육지원정책과	김미정	2133-3910
교육플랫폼기획팀장	조원희	2133-9277
관련 홈페이지	https://slearn.seoul.go.kr (서울런)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6쪽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EBS 플랫폼과 연계된다...교육격차 해소 박차

- 27일(수) 서울시-EBS '교육격차 해소 위한 업무협약'... '약자와의 동행' 가치 실현
- 서울런 회원, 가입 없이 EBS 이용 가능, 교재비 지원, 수능 특별강의 콘텐츠 제공받아
- 시, EBS와 협력 통해 교육 사다리 한층 더 강화하고 서울런의 공적 기능 확대해나갈 것

-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대표 교육정책인 서울시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이 EBS(한국교육방송공사)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확대하며 교육격차 해소에 박차를 가한다.
 - EBS는 대한민국의 교육 전문 공영방송이자 출판사로 1등 공교육 기관이다.
- 서울시는 27일(화) 오후 2시 10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유열 EBS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EBS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취약계층 4대 정책 중 하나다.

※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4대 정책 : ▲생계(안심소득 시범사업) ▲주거(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교육(서울런) ▲의료(공공의료 확충)

○ 서울시는 지난 18일(월) 열린 ‘서울런 2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서울연구원의 성과분석 발표를 통해 서울런이 이용자들의 학습역량과 수업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가계 사교육비 절감에도 도움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 이번 협약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이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결정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로까지 이어지며 빈곤이 대물림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양 기관이 공감하면서 마련됐다. 양 기관은 향후 취약계층에 공정한 교육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은 자녀에게 부와 지위를 물려주기 위한 여러 수단 중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방과 후 좋은 선생님을 붙여줘 ‘교육기회를 사재기’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즉, 교육이 불평등의 출발선이 되고 교육을 통해 불평등이 세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1인당 월 사교육비 : 월 소득 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 648천 원,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 124천 원으로 5배 이상 차이('22년 통계청)

- 고소득 가구(가구소득 4분위) 자녀의 대학진학률 68%, 저소득 가구(가구소득 1분위) 자녀의 대학진학률 41%로 27% p 차이('22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서울런-EBS 플랫폼 연계 ▲ EBS 교재 구입비 지원 ▲ 서울런 회원 전용 오프라인 특별강의 공동 운영 등을 위해 함께 힘쓸 예정이다.

○ 서울런과 EBS 학습사이트 간 SSO(Single Sign-On) 개발로 서울런 회원은 별도의 EBS 회원가입 없이 서울런을 통해 자신의 학교급에 맞는

EBS 학습 사이트로 이동해 학습할 수 있게 된다. 1월 15일부터 EBS 초등, EBS 중학, 고교강의인 EBSi가 연계되며, 유료 사이트인 EBS 초등 ON은 '24년 상반기 중 연계될 예정이다.

※ 서울런 연계 학습사이트

교과 과정(16)				비교과 과정(3)		
초등과정(3)	중등과정(3)	고등과정(4)	기타과정(2)	EBS(4)	자격증(2)	독서(1)
아이스크림 홈런, 엘리하이, 밀크T	엠베스트, 온라인, 밀크T	메가스터디, 밀크T, 대성마이맥, 이투스	에듀윌(검정), 토도원(노란학습자)	EBS 초등 ON, EBS 초등, EBS 중학, EBSi	에듀윌(자격증), 해커스	월라
택1				중복이용	택1	중복가능

- 서울런을 통해 EBS 학습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10만 원의 EBS 교재 쿠폰이 지급되며 쿠폰은 온라인 교보문고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서울런×EBS 수능 특별강의 콘텐츠는 수능을 준비하는 고3 및 N수생 회원을 대상으로 3월 학력평가와 6월, 9월 수능 모의평가 문제풀이 오프라인 특강을 제공하고, 현장 강의는 교육 콘텐츠로 제작할 예정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모의 경제력, 사는 지역에 따라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차이로 인한 불공정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출범한 서울시 교육사다리 복원정책 ‘서울런’이 지난 성과보고회를 통해 서울런 이용 학생의 성적이 오르고 가계 사교육비 지출은 감소하는 등 서울런의 교육성과와 사회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었다”며,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전문 방송으로 공교육 지원에 앞장서는 EBS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런이 더욱 튼튼한 교육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해 나감과 동시에 서울런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붙임 1. 서울런-EBS 업무협약식 개요.
2. 서울런-EBS 업무협약서. 끝.

□ 행사개요

- 일 시 : '23. 12. 27.(수) 14:10 ~ 14:25(15분간)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
- 참석자 : 시장, EBS 사장, 평생교육국장, 디지털학교교육본부장
- 협약내용 : 서울런-EBS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MOU
 - 서울런 - EBS 플랫폼 연계, 오프라인 특별강의 공동 운영, EBS 교재지원 등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요 무 협약식	14:10~14:12 (2')	MOU 취지 설명 사회자 : 강해나 (EBS 성우 28기)	영상회의실
	14:12~14:22 (10')	인사말씀(시장님 → EBS 사장)	
	14:22~14:25 (3')	업무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서울런 - EBS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 무 협 약 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격차의 문제를 인식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교육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력한다.

제3조(협력사항) ① 양 기관은 각 운영 중인 교육플랫폼을 연계하고 학습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기로 한다.

② “본 사업”과 관련한 협약의 각 당사자의 기본적인 역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의 역할

가. ‘서울시 교육플랫폼(서울런)’ - ‘EBS 교육플랫폼(EBS초등, EBS초등on, EBS중학, EBSi)’ 연계를 위한 표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규격 제공

나. 오프라인 특강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소 제공 및 교육 참여자 발굴·모집

2. “EBS”의 역할

가. ‘서울시 교육플랫폼(서울런)’ - ‘EBS 교육 플랫폼(EBS초등, EBS초등on, EBS중학, EBSi)’ 연계 개발

나. 오프라인 교육 특강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강사 섭외 및 제작 장비·인력 지원

다. '서울시 교육플랫폼(서울런)' 회원의 EBS 교재구매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제4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협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유효하다.

② 당사자 일방의 사정으로 본 협약의 해지 및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 본 협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는 협약의 목적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제6조(세부사항 등) 양 기관은 본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협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한다.

제7조(법적구속력 등) 본 협약은 각 기관의 상호협력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제5조(비밀유지)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제8조(기타사항 등) 본 협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항이나 당사자간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장이 각 서명한 후 각 1부를 보관한다.

2023년 12월 27일



시 장 오 세 훈



사 장 김 유 열